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29(土)	30(日)

- News**
- 광주은행 지역민 인수 무산 ②
 - '최승호 고백' 일반에 공개 ③
 - 암보험료 5~30% 인상 ④

- Jeollado**
- 그 사람 - 서양화가 조규일씨 ⑦



- Entertainment**
- 방송사 드라마 전쟁 ⑧
 - 음악영화가 뜬다 ⑨

- Wellbeing**
- 식품 탐구 - 더덕 ⑬



유형별 장학금 57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

기아차 中·슬로바키아 '스포티지' 양산 개시 광주공장 생산 축소 큰 우려

유럽 수출물량 끊겨 ... 대체시장 마련 나서야

기아자동차가 슬로바키아와 중국 등 해외 공장에서 '스포티지' 생산을 확대, 기아차 광주공장의 주력차종인 스포티지 생산 물량 축소가 불가피 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기아차가 지난 5월부터 슬로바키아 공장에서 스포티지 양산에 들어가면서 광주공장의 유럽 수출 물량이 사실상 끊긴데다 다음달부터 중국공장에서도 스포티지를 생산하기로 해 지역경제에 파장이 예상된다.

28일 기아차에 따르면 중국 합작법인인 '둥펑위에도기아차'가 다음달부터 중국 옌청(鹽城)시에 있는 1공장에서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인 스포티지를 생산, 판매한다. <본보 지난해 12월 13일자, 1월 29일자 1면 보도>

기아차는 옌청시 1공장에서 생산하던 세라토를 2공장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서 스포티지 1만여대를 생산, 10월말부터 현지 판

매를 시작해 내년부터 생산규모를 크게 확대 할 방침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25%에 달하는 높은 관세 등으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중국인 입맛에 맞는 모델을 공급하기 위해 현지 생산을 확대하기로 했다"면서도 "중국공장 물량은 전적으로 중국 내수시장에서 소화해 광주공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광주공장에서 생산돼 중국에 수출된 스포티지 3천대가 내년부터는 당장 중국공장 물량으로 대체되는데다 중국공장 에서 내년 생산물량을 3만대로 늘릴 것으로 알려져 광주공장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에 앞서 기아차 슬로바키아 공장에서도 지난 5월부터 유럽판매용 스포티지가 양산 되기 시작해 광주공장의 유럽 수출물량은 끊긴 상태다.

더욱이 슬로바키아 생산물량이 올해 4만 5천대에서 내년 7만 5천대로 늘어나는 등 스포티지 해외생산 물량은 내년에만 10만 5천대로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해 광주공장에서는 총 15만 7천576대의 스포티지가 생산돼 12만 1천361대가 수출됐으며 유럽시장이 전체 수출물량의 41%를 차지했다.

광주공장 노조 관계자는 "지난 7월부터 회사측이 특근을 없애자고 요구하고 있다"며 "슬로바키아 현지생산으로 끊긴 물량을 북미 등 타 지역으로 돌려주겠다며 노조를 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해외공장 신설 및 차종 투입 결정시 노조와 합의하도록 돼 있는데도 회사측이 이번 중국공장 스포티지 생산에 대해 현 노조와 합의하지 않았다"며 "해외생산으로 인해 광주공장 물량이 줄 경우 어떤 형태로든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혀 노사간 마찰 가능성을 예고했다.

/이종대기자 jilee@kwangju.co.kr



광주체전 성화 '민주평화의 불'

오는 10월 8~14일 광주에서 열리는 제88회 전국체전을 10일 앞둔 28일 박광태 광주시장(왼쪽)과 이기홍 변호사가 '국립 5·18 묘지'에서 민주평화의 불을 들어 보이고 있다. 5·18묘지를 출발한 성화는 이날 광주시청 광장에 미리 와 있던 강화도 마니산에서 재화한 '민족화합의 불'과 합해졌다. 성화는 다음달 6일 무등산에서 재화하는 '문화예술의 불'과 더해진 뒤 708명의 주자에 의해 시내 88개 구간 130km를 돌아 체전 개막일인 다음달 8일 월드컵경기장 성화대에 점화돼 체전이 끝날 때까지 경기장을 밝힌다.

/위지량기자 jrwi@kwangju.co.kr

'범여 텃밭 주인' 오늘 판가름

신당 광주·전남 경선 ... 오후 7시 결과 발표

대통합민주신당 경선 레이스의 최대 분수령인 광주·전남 경선이 29일 실시된다.

24만명의 선거인단이 참여하는 경선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광주·전남지역 27개 시군구 투표장에서 펼쳐진다. 투표 결과는 이날 오후 7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발표된다. <관련기사 2면>

범여권의 전통적 텃밭인 광주·전남지역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전체 경선 향방이 좌우될 것이라 인식 때문에 각 주자들은 결전 하루 전인 28일에도 총력전을 전개했다. 이날 손학규, 정동영, 이해찬(이상 기초 순) 후보가 부산 합동연설회에서 유세 대결을 펼치는 사이 광주·전남에서는 후보별 지지선언이 잇따랐다. 또 소속 의원들은 지역 곳곳을 누비며 득표 활동을 펼쳤다.

손 후보 측은 이날 광주에서 잇단 지지선

언으로 힘을 얻었다. 지난해 손 후보의 민심 대장정 때 인연을 맺었던 지역주민 1천110명은 이날 "손 후보만이 서민과 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서명원 한국인민교육원 이사장, 이광우 전 5·18재단 이사장 등 광주·전남지역 민주개혁원로 인사 250여명도 이날 구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손 후보가 국가경쟁력학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춘 적임자"라며 지지를 선언했다. 이와 함께 김동철·김성곤·김태홍·송영길 등 지지 의원 25명도 "도로 열린우리당, 민주세력 분열의 주역, 노무현 대통령 대리인으로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며 손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정 후보 측은 대구·경북지역에서 지지선언을 이끌었다. 이 지역 대학 교수와 문화예술인 300여명은 이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토대

를 마련하는 것과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후보는 정 후보뿐"이라며 지지를 선언했다. 또 이해찬 후보가 '신의론'을 펴며 공세의 날을 세우고 있는 데 대해 정면 대응하면서 정통성을 강조하는데 주력했다. 김현미 대변인은 "당해 경선이 흡입대기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 후보의 '배신의 정치' 역사를 짚아왔으나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91년 신민당 탈당 후 92년 14대 총선을 앞두고 복귀했던 이 후보의 이력을 거론했다.

이 후보 측에서는 이날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의원 10여 명이 시·군·구 지역을 순회하면서 지역 활동가들과 접촉을 가졌다. 지역 언론과 구전(口碑)홍보를 통해 이 후보를 민주개혁진영의 적자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강력한 경쟁 상대로 여기는 정동영 후보의 본선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전통적 지지층의 표심을 끌어오겠다는 복안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미얀마 유혈사태 격화 ... "수십명 사망"

미얀마의 반정부 시위가 28일 11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안군이 군중의 머리위로 경고사격을 가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미얀마 보안군은 이날 오후 양곤 시내 중심가인 슬레탑(賭) 주변에 모인 1만여명의 군중에게 확성기를 통해 해산할 것을 명령했

으며 이어 경고사격을 가하고 무자비하게 군봉을 휘둘렀다고 목격자들이 전했다.

한편 밥 데이비스 미얀마 주재 호주 대사는 28일 반정부 시위대를 미얀마 군정이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10여 명 골절되는 수가" 솟았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AP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11가지 생약성분 소화제 - 부채표 가스활명수큐!

“저도 가스활명수 좋은거 다 알아요!!”

겉고 뒹든지 다 소화시키는거 아니잖아요.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고... 저는 그럴 땐 가스활명수만 마셔요. 소화에 좋은 11가지 생약성분까지 있으니까 - 부채표 가스활명수 좋은거 저희도 다 알아요!

부채표가 없는 것은 활명수가 아닙니다!

소화를 돕는 가스활명수의 11가지 생약성분 : 이산화, 고추틴크, 계피, 육두구, 현호색, 정향, 창출, 건강, L-Menthol, 진피, 후박

11가지 생약성분 - 부채표 가스활명수큐